

禪의 향기 그윽한 백두대간의 '사리'

자성봉을 향하여 화령

백두대간 속으로

<19>

뜻밖의 즐거움에 여행의 묘미가 있듯, 예측불허의 불순한 날씨의 여름 산행의 매력이기도 하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짙은 안개가 만들어내는 적외 속에 스미듯 다가오는 산과의 일체감, 속수무책으로 내려앉히는 소나기에 흠뻑 젖고서 아 맛보는 역설적 안도감. 탐구영미져 밀려버릴 것처럼 직립하는 태양 아래서, 체념에 제압당한 인내를 보고서야 느끼는 자유, 이렇듯, 감성의 굳은살 한 켠만 벗겨내도 자연과의 교감은 부채살을 편다.

나보다 먼저 비에 젖는 '서 있는 키 큰 형제들'(인디언들은 나무를 이렇게 부른다)을 스쳐지나는 여름 산길은, 한지로 걸러진 간접 조영같은 은밀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열어가야 한다. 그렇게 열리는 길은, 순간 순간이 최초의 길이고 길을 걸음이 생애 최초의 내딛음이다.



◇문경시 가은읍에서 바라본 회양산.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산을 이룬 듯한 지대는 대덕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

저기 한국 불교가 가부좌를 틀고 앉은 곳, 봉암사 가는 길에 뱀발기 곱다. 그 고혹적인 빛깔을 보노라니, 뱀발기 옆을 지난 때마다 정말로 뱀이 나올 것 같아 마음 졸이던 어릴적의 무성증이 되살아난다. 그리고 보니, 관능의 극치를 보여 주는 듯한 뱀의 빛깔은 뱀발기의 도발적 뽀함으로 담았다. 아직도 내가 밟고 선 이곳은 '오육락의 이권'임을 절감케 한다. 오로지 화두 일념으로 일체의 세속적 욕망에 빛장을 지른 봉암사는 아직 아득한 저편, 두 다리를 채근할수록 천동번거승리가 될 것은 변한 일, 긴 숨을 토해 내고 단전에 힘을 실어 본다.

이번 산행의 출발지는 문경시 가은읍의 버리미기재. 한때 화전을 일구던 버리미기재를 지나 913번 지방도의 고갯마루다. '벌어먹이다'는 말의 경성도 사투리에서 비롯된 이 이름에는 손바닥만한 땅짜기에 목숨을 의탁해야 했던 우리네 지난 날의 궁벽한 산골 살림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곳에서부터 장성봉, 악회봉, 구왕봉 넘어 회양산, 그리고 다시 이만봉을 지나 백화산과 황학산을 거쳐 이화령까지가 이번 산행의 목표. 어렵잖아 도상 거리 25km가 넘는 만만치 않은 거리다.

회양산의 남쪽 들머리를 외호하듯 솟아오른

봉암사 절 아니면 도적 소굴 될 명당 승풍 쇠신 짝 띄운 한국 선불교 요람

장성봉, 백두대간이라는 지리 인식의 개념들이 없었더라면 계속 숨어 지냈을 산인데, 때마침 피어난 산나리의 진홍빛 고운 재태가 그 순수함을 대변하는 듯하다. 드문드문 소나무 아래 진달래 철쭉 무성한 초입과 달리 정상 가까이는 안장된 참나무 숲으로 전이 이루어져 있다. 맑은 날이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악회봉에서부터 회양산, 내화산의 지태가 한눈에 들어온다.

장성봉을 지나면서 경북 문경시의 충북 괴산군의 경계를 이루는 백두대간은 북쪽으로 공작내달리다 악회봉에서는 동남쪽으로 심하게 구부러지며 은치(540m)에서 잠시 허리를 낮추고 숲을 고른다. 특히 이 구간의 동남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봉암사에 이르는 20km 남짓한 계곡이 바로 그 유명한 '봉암용곡'이다.

은지에서 시작되는 구왕봉(896m) 오름길은 제법 가파르다. 구왕봉은 달리 구룡봉으로도 불렀는데, 봉암사 터를 잡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연못을 메울 때 용이 살고 있어서 지중대사가 신룡령으로 훔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봉암사에서는 이 봉우리를 남개봉이라고도 부른다. 지도를 놓고 그 형세를 살펴보면, 회양산을 몸통으로 삼아 봉암사로 날아드는 한 머리 새의 오른쪽 날개와 흡사하다.

구왕봉에서 바라보는 회양산(999.1m)의 지태는 어설픈 형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위엄을 지니고 있다.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기슭 남쪽 끝에 아스라이 자리잡은 봉암사는 심산(深山)이

라는 말에 길이를 더해주고 있고, 군더더기 없이 중심 솟은 바위봉우리는 산의 물리적 높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연이로 존재의 집을 지어보겠다는 허튼 수작을 일로 삼은 이상, 한 마디 일러보겠다는 욕심마저 접을 수는 없었다. 감히 말한다. 회양산은 백두대간의 '사리'다. 신라 현감왕 5년(879) 지중 도현(智證通憲, 824~882) 국사가 창건한 봉암사. 오늘날 회양산 문으로 불리는, 9산 선문 중 하나인 이 절을 기억함에 있어서 지중 국사와 아울러 성철 스님과 의연의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두 스님과 봉암사의 인연사가 한국불교사에 드리운 자취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먼저 신라의 대문장가 최치원이 지은 <지중대사비문>이 전하는 창건의 내력을 살펴본다.

심종(沈宗)이라는 사람이 지중 국사를 찾아가 '봉암용곡'을 회사하며 절 짓기를 간청했다. 이에 지중 국사는 나무꾼이 다니는 길을 따라 가면서 산세를 두루 살폈다. 이를 최치원은 이렇게 그리고 있다.

"신이 사방에 병풍처럼 둘러 있으니 마치 봉황이 날개로 구름을 헤치며 오르는 듯하고, 백경 피처럼 흐르는 계곡물은 풀 없는 용의 허리가 물을 덮은 것과 같다. 이에 (지중 국사가) 감탄조로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 하늘이 내린 땅이라 하지 않겠는가. 스님들의 거처가 되지 않으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다.'" (홍진 우리말은

지관 스님의 역주를 바탕으로 하였음) 회양산문은 이렇게 열렸다. 그러나 후삼국의 격변기에 폐허가 되었고 935년에 정진 공양(靜眞公, 878~936)에 의해 중창되었으나, 성리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부상한 조선에 이르러서는 부침을 거듭하며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 1982년 이후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오히려 한국불교의 자랑으로 받들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성철 스님을 떠올려야 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만신창이가 된 한국 불교는 1947년 겨울, 이른바 '봉암사 결사'로 불리는 일대 사건을 통해 혁신의 깃발을 올렸었다. 성철 스님의 주도로 창당, 자운, 월산, 예암, 법전 등의 스님들이 "부처님 법답게 살자"는 극히 간명할 결사의 정신으로 승풍의 쇠신을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천년 저편의 개산 정신이 오늘날로 이어지니, 비로소 1600년 한국 불교의 역사는 장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삼보에 대한 예로 정착된 '심배'나, 스님들의 복식 특히 붉은 가사가 괴색으로 바뀐 것도 이 때의 일이다. 오늘날의 한국 불교에 끼친 <봉암사 결사>의 영향력은 무겁고도 크다고 하겠다. 실로 회양산은 '백두대간의 사리'라는 표현에 걸맞은 산이다. 또한 회양산은 봉암사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의 정신적 여백이 된다. (대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누구에게나 발길을 허용한다.)

회양산을 벗어난 백두대간은 백화산에 이르기까지는 피어올고 오르내리기를 거듭하지만, 백화산에서부터 이화령까지는 평원 같은 분위기에 서 산길 걸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마음껏 허파에 긴 먼지가 털어낼 일이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회양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봉암사.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명당이다.

두통,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고혈압, 수족냉증, 사십견...

기적처럼 낫는다!



'자기의 병 자기가 고치' 기적의 대체의학 심천 사혈요법

죽은 피(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이 물러간다!

인체의 각 장기와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균균이 들어오면 이를 물리치는 '피'가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 몸은 늙을 이유도 없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신장이나 간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금속이 누적되면 생기는 어혈(죽은 피) 때문에 사람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심천 사혈요법'은 바로 이 어혈을 직접적으로 빼내어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안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자연요법이다.

각종 만성병, 난치병까지도 보게 하는 '심천 사혈요법'의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말은 변의 근육통 무릎 관절 오십견 허리 통증 관절염 골관절염 피부과 질환 협심증 당뇨병 우울증 간염 지방간 불임 질환

심천 사혈요법 비용 (월 8,000원) *처음 시범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733-3135 www.mindvision.org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經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병박사)